# 이재명 "나 하나 죽인다고 尹정부 무능·무책임 못덮어"

## 민주당 광주서 현장 최고위 회의
## 야당탄압 규탄 尹정부 전방위 공세
## 양금덕 할머니 찾아 굴종 외교 비난
## 군공항 이전·가뭄 해결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28일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연설에서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는 등 사실상 대정부 장외 투쟁 성격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또한,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민주주의가 숨쉬기 점점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면서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냐"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창설된 드론부대의 창설을 앞당긴다니, 이러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말고 제발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날,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티타임에 새로 입양한 은퇴견을 소개했고, 저녁에는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씻을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불러 송년만찬을 진행했다"면서 "그 시각에 대통령은 한가롭게 술잔이나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했다는 말을 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됩니까?"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현 정부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협찬을 통해 배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고위 회의에 앞서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옆에서 '얼마면 되느냐'고 하는 느낌"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현안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가뭄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여기에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특히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 마무리 짓겠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 국비예산에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라든가 AI영재고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광주가 AI 대표도시·중심도시로 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더 지방자치 분권에 큰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시작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무더기 반대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 김회재 의원,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 박홍근·주호영 등 의원 52명 연명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함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총 52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명했다.

이들은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 특히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하지만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관음성지 핵심 탐방코스인 금오산 거북머리 순례길 차단으로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 국방부 등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인근 군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군사시설 이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군사시설 이전 이후, 향일암의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